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를 꿈꾸며...

○ 글_송민주·고등과학원 수학부 연구원



저는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게임이나 오락에서 점수 계산을 하는 것을 즐기고 곧잘 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숫자 놀이를 하고, 문제를 풀고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익히는 것들을 즐기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다른 공부를 하다 졸리면 수학 문제로 잠을 깨는...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전남대와 포스텍 대학원을 거쳐 고등과학원으로까지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숫자와의 좋은 인연 탓인지 아니면 좋은 기운이 항상 저를 이끌어주었던 것인지 좋은 코스를 거쳐 온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와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첫째로 우거진 나무와 풀들이 그렇고, 둘째로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감을 심어주는 분위기가 그렇고, 또한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지만 번잡하거나 시끄럽지 않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곳에서 나의 수학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기운을 심어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Several Complex Variables'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어느 분야가 그렇지 않을까마는,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엮여있어서인지 지금까지 약 6년을 공부해왔지

만, 늘 새롭고 놀라운 참으로 신비로운 분야입니다. 그 중 제가 졸업논문을 쓰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 부분은 비컴팩트 자기동형사상군을 가지는 영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 영역의 경계에서의 함수값, 불변량, 그리고 해석적 접벡터장 등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히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정의된 'Bergman 좌표계'가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 좌표계인지, 그리고 이것이 영역과 영역 사이의 관계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고등과학원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연구를 진행·확장해 나가는 많은 박사님들이 있어서) 많은 자극을 주고, 빨리 적응해서 발전해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행사와 세미나, 한편으로 많은 시간과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흘러들듯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저이기에 앞으로 더 긴장하고, 이 좋은 인연과 기운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이곳을 거쳐서 흘러나가 만나게 될 세상이 큰 강일지 혹은 바다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고등과학원의 좋은 기운까지 흡수하여 더 열심히 흘러가보려 합니다. 언젠가 맞닿을 반짝반짝 빛나는 힘차게 출렁이는 바다를 그리며...